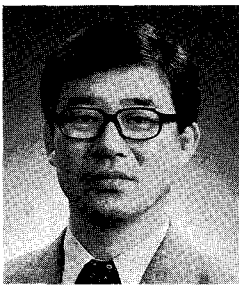


채란업의 수익성 향상 방안

질병의 사슬을 초동단계에서 끊어 버리자



박 재 환

(주)삼양사 양계PM/농학박사

창간 33주년을 맞은 월간양계에 우선 축하를 드리며, 한국의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료 회사의 양계PM으로서 국내 채란업의 수익성을 생각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산란계 질병 만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산란계 사육 수수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육수수의 조절 문제는 채란업 종사자 전체의 이해와 관계된 문제라서 선부른 접근을 접어두고, 산란계 질병 만연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하고자한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양계 질병의 백화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채란계 사업은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금티푸스

의 만연, IB의 상재, ND와 AI의 주기적 발생 등 이 모든 질병들이 채란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질병들과 싸우면서 채란업을 하고 계신 사양가들을 볼 때 숙연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질병과 싸우고있는 많은 사양가들이 질병 발생을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하여 질병을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단편적으로 대응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마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극히 기본적인 예기지만 질병은 닭의 건강, 시설, 사육환경, 사료, 영양, 기후 및 다른 질병의 발생 유무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 정도와 강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병 상호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금티푸스와 ND, AI를 두고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별개의 질병으로 치부하고 예방과 치료를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정작 이들 질병의 발생은 합병증의 형태를 띠는 점에 주목하고 상호 연관 관계를 생각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가금티푸스는 단독 발생의 경우는 필드에서 현재 적용 중인 여러가지 방

법을 통해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ND나 AI, IB 등과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치명타를 입고 도태 또는 환우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가 보고 듣고 배우기로는 최근 산란계의 질병 흐름은 AI나 ND가 발병하여 잠재해있던 IB나 가금티푸스의 발병을 촉진하고 MG나 대장균증 발생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질병 발생의 사슬을 초동단계에서 끊기 위해서는 ND와 AI의 근절이 급선무이지만, AI는 예방제가 없으므로 ND와 IB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ND와 AI의 예방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필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ND+IB 혼합 분무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중병아리 단계(60일령) 부터 60일을 주기로 계



속 실시하고 환절기에는 30일을 주기로 좀더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호흡기 질병이 가금티푸스와 합병증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문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우리 채란업계에는 이런 종합적인 시각을 확대하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양계**



각 분야별 전문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자



박 태 순

(서부배합사료(주) 품질관리팀)

정과 질병 만연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인 안정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축산업과 관계된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농장은 없으리라 사려된다.

축산업 중 특히, 채란업은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와같이 급박한 현실에서 채란업에 종사하는 많은 농장에서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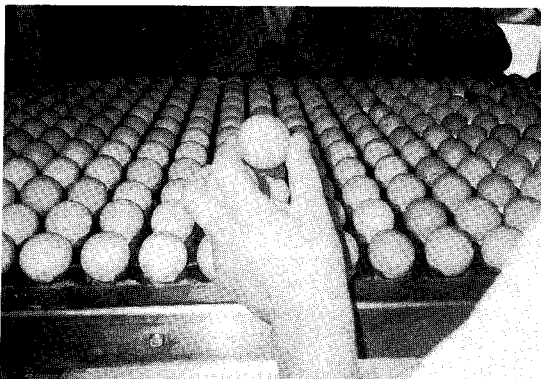
작 금의 축산업은 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수급의 불안

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수익성 증대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사양기술이나 질병관리, 사료영양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지역 수의사나 사료기술 담당자 등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각 농장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에 노출되어 농장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부적절한 사료의 공급이나 사양관리 미숙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채란업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각 분야에 전문성이 상호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유익한 승/승의 원리를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시장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채란업과 연계된 업계가 분담해야 할 몇가지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채란업에 종사하는 사육농가의 대부분은 농장관리나 경제적 사료의 구매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좋은 계란품질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단순한 관리차원에서 벗어난 양계업을 경영한



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농장경영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성 있는 관리체제를 도입하여야 하겠다.

또한, 양계산물의 생산은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배합사료 생산업체는 양질의 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양가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최적의 사양기술을 농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함과 아울러 농장 경영에 필요한 정보나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농장과 협의하여 도입함으로써 농장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는 농장의 질병방어를 위해 각 농장 실정에 적합한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의컨설팅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양계경영이라는 큰 범위에서 서로 잘 조화되어질 때 채란업에 종사하는 사양가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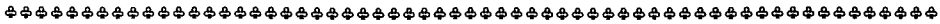
채란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모든 채란인의 공동의 목표일 것이며, 이러한 생산성향상은 기본에 충실한 경영전략과 변화요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유연한 대응전략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생산을 담당하는 사양가는 양질의 축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에 전념하고, 배합사료업체에서는 사양가들의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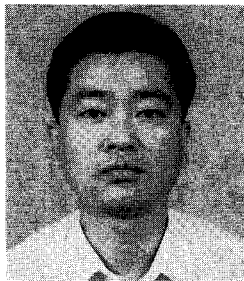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사료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농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지역 수의사들의 질병 방어를 위한 노력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전 축산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축산업이 단순히 가축을 기르고 그 생산물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사회,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의 축산업도 최첨단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축산업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전산프로그램의 접목과 사양관리기술의 습득 및 활용,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영혁신은 농장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양계**



철저한 기록관리로 일일 계란 생산비 1원 절약



유 종 석

(서울사료 기술지원부 차장/양계 PM)

채 란계 농장을 방문시에 동별 및 계군별의 성적을 알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사양기록부나 전산 성적이다. 그러나, 일부의 농장(규모가 크든, 작든)에서만 병아리 입추시에 지급된 사양관리 기록부나, 자동 집계된 전산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장들은 단순히 최근의 산란율과 등급별 난중, 사료 섭취량의 경향 등에 관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자료관리를 하지 않는 농장에서는 항상 과거의 산란계 농장 운영기간의 경험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서는 관심의 정도가 적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의 기억력은 어느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상실되게 마련이다.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부터라도 사양관리 기록과 성적에 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농장의 사양관리 기록부는 산란계가 입추시 병아리부터 최종적으로 도태시까지의 과정을 담아둔 하나의 기록서이다. 이 기록부에는 모

든 사항을 기록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 분석도 할 수 있다. 어떤 농장에서는 계란 창고에 걸려있는 달력, 거래처에서 년초에 받은 다이어리등에 일일 산란율의 등급별 계란수 등을 기록한다. 그 이후는 기록으로 끝나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가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농장이 미미하다. 달력 한 장은 월이 바뀌면 소멸되며, 다이어리 또한 1년이 바뀌면 자연히 책상 서랍속으로 들어간다.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 한알의 가격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농장의 역사서인 기록부에는 등한시하는 관념에서 이제 탈피하여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제, 사계절중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다. 그러면, 계사의 내, 외부 온도는 떨어지고, 섭취량은 늘어나기 시작한다. 지금의 계사

들이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과신하면 안될 것이며, 기계보다 더욱 정확한 것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계사내 온도 변화는 어떤지, 섯바람은 없는지, 급수라인과 사료급여라인은 이상이 없는지 등의 확인과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가 추우면 내 농장의 가축들도 추운법이다. 아침과 저녁에 한번 더 계사안에서 확인을 하고, 기록한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지금의 어려움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사양관리기록에 비중을 두고, 기록 그 자체만으로 끝내지 않고, 정확한 농장 경영분석을 하시어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개선하여 선진 축산의 바탕을 우리 산란계 농장에서부터 기록하기를 바란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